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 개인도 계속 힘을 얻고, 현장도 살리고, 미래 특히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다. 교회가 우리 개인을 살리는 영적 가정이고,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이고, 우리 후대를 지원하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아가는 시대를 보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인간의 타락과 사단의 역사로 인해 어떤 저주와 재앙들이 세상 속에 있을 것을 세밀하게 예언해주는 성경이다. 그 사단의 진짜 공격 목표는 교회라고 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들이 그것을 놓치고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남은 자들의 교회가 있고(계12:17), 그 흑암을 이기는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계17:14). 남은 자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어야 한다. 핵심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 속에 들어가면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학업, 산업등) 참된 성공과 승리의 비밀도 여기 있다. 본문에 하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교회를 쓰지 않으시고, 보잘 것 없이 보이고 오히려 휩박을 받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를 쓰신 이유가 있다.

1. 교회 본질의 첫 번째는 교회의 의미이다. 교회의 근본이다.

1)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직접 세우시고 축복하신 곳이다(하나님의 교회).

에덴 동산도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축복하신 곳이다. 사단은 이것을 놓치게 하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히3:6).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우셨고, 그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정이다.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함께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사단은 세상적인 힘을 가진 소수와 반대로 다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②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엡1:23)

그리스도의 뜻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했다.

그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다.

사단은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도록 이끌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③ 교회는 성전이라고 했다(고전3:16).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쓰지 않으시고, 마가 다락방 교회를 쓰신 이유가 그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으나 성령의 역사가 떠났고, 마가 다락방 교회는 비록 초라하고 소수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역사가 임한 곳이기 때문이다(행2:1-4)

2) 이 교회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교회를 어떤 자세로 사랑하고, 사역하고, 헌신해야 하는 지가 나온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한 일이 이것이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했다(요2:17).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다(골1:24)

2. 교회 본질의 두 번째는 교회의 기초이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둔든해야 힘이 있다. 학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1) 모든 것의 기초는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 마가 다락방 교회는 이 기초가 분명했다.

복음은 창3장의 저주에서 빠져 나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이다.

창3장으로 개인만 저주 받은 것 아니다. 땅도 저주 받았고, 모든 하는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다(창3:17)

여기서 빠져 나오는 비밀이 오직 복음 곧 오직 그리스도이다(행4:12).

그때 개인도 교회도 반석이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린다(마16:16-19).

2) 이 복음을 다음의 기도이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기초가 분명한 교회였다(14절, 행2:42)

이 복음을 불잡고 24 기도를 누리는 개인과 교회 위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교회는 보좌의 그림자)

①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3생명의 축복)

② 그때 세상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단의 역사를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3초월의 축복)

③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3전무후무의 축복)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휩박 받던 마가 다락방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

날마다 표적(증거)가 일어나고, 경제도 회복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고 했다(행2:43-47)

3. 교회 본질의 세 번째는 교회의 기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미션)

성도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에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미션은 한마디로 하면 이 오직의 복음과 기도로 다 살리라는 것이다(전도와 선교).

1)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속국이 된 이유도 이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와 우리 민족 축복 받은 것에만 집중하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이다.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사62:10)고 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2)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마지막 이유도 이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분노한 이유가 그것이다(요2:13-16).

성전(특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했다.

3) 세가지 미션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헌신하면 된다. 이것이 3시대 살리는 축복이다.

① 다민족을 살려 237과 오천 종족 살리는 일꾼을 키워내야 한다(마28:18-20).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

②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전해 병들고 무너진 영혼들을 치유하라는 것이다(막16:15-20). 하나님의 마음이다.

③ 후대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고, 렘넌트 써밋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요21:15-17). 하나님의 미래이다.

한 사람에 집중해보라. 올해 계획되는 렘넌트 훈련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결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내 인생 속에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교회가 누려야 할 복음과 기도의 축복이 내가 누릴 축복이다. 다민족 사역, 현장 치유, 써밋 렘넌트 사역에 헌신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도 이 속에 있기를 축복한다.